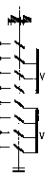


515 뜻없이 무를 품는



Capo=3rd
J. Hay, 1891

조음: 페르제 J=100

LANGLOFFAN: 7.6.7.6.D.
Welsh Hymn Melody
from D. Evans' *Hymnus A Tripartit*, 1865

1. 뜻 없 이 무 를 주 를 품 는 그 강 복 자 마 르 게
2. 약 한 지 이 무 험 주 를 품 는 그 강 복 자 마 르 게

운 주 명 자 에 정 말 겨 사 는 이 그 주 생 활 의 뜻 이 라
추 한 자 에 정 말 겨 사 는 이 그 주 생 활 의 뜻 이 라

우 리 의 아 래 밤 치 는 아 곳 주 수 기 리 게 닳 듯 서 이
해 의 아 래 밤 치 는 아 곳 주 수 기 리 게 닳 듯 서 이

주 뜻 이 이 되 어 지 다 외 치 의 가 가 나 나 나 아 멘
팔 로 이 이 되 어 지 다 외 치 의 가 가 나 나 나 아 멘

회년을 향한 우리의 행진

1. 정 의 가 강 세 를 물 뿌 리 며 평 지 가 온 들 수 난 불 치 림
2. 는 는 물 가 세 를 물 뿌 리 며 평 지 가 온 들 수 난 불 치 림

사 랑 이 란 우 리 는 빛 처 럼 에 하 나 님 주 신 생 명 모 듨 연 름 다
아 라 우 리 는 빛 처 럼 에 하 나 님 주 신 생 명 모 듨 연 름 다

회 년 을 향 해 함 께 가 는 길 주 의 약 속 곧 게 믿 으 며 일 품
우 우 우 우 우 우

아 번 씩 일 꿈 번 넘 어 저 도 약 속 을 곧 게 믿 으 며
넘 어 저 도 약 속 을 곧 게 믿 으 며

시편 81, 82편

<p>81편</p> <p>1 우리의 힘이신 하느님께 즐거운 노래를 불러 드려라. ○ 야곱의 하느님께 환성을 올리어라.</p> <p>2 풍악을 울리고 소고를 쳐라. 거문고를 울리며, ○ 수금으로 아름다운 가락을 뜯어라.</p> <p>3 초하룻날이다, 나팔을 불어라. ○ 대보름날이다, 나팔을 불어라.</p> <p>4 이는 이스라엘이 지킬 규정ियो ○ 야곱의 하느님께서 주신 법이다.</p> <p>5 이집트에서 나오실 때 ○ 요셉 가문에 내리신 훈령이다.</p> <p>6 내가 전에는 알지 못하던 소리를 들었으니, ○ “내가 너희 등에서 짐을 벗겨 주었고 광주리를 내던지게 하였다.</p> <p>7 너희가 곤경에 빠져 부르짖을 때 살려 주었고: 폭풍 속에 숨어 너희에게 대답하였으며 ○ 므리바 샘터에서 너희를 떠보기도 하였도다.”</p> <p>8 “백성들아, 내가 타이르는 말을 들어라. ○ 이스라엘아, 정녕 나의 말을 들어라.</p> <p>9 너희는 다른 신을 모시지 말라. ○ 이교도의 신을 예배하지 말지니라.</p> <p>10 너희 하느님은,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낸 나 야훼 하느님이다. ○ 다만 입을 크게 벌려라, 내가 채워 주리라.”</p> <p>11 “그러나 내 백성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고 ○ 이스라엘은 나의 뜻을 따르지 아니하였다.</p> <p>12 그러므로, 나는 그들의 마음을 굳은 대로 버려 두어 ○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게 하였다.”</p> <p>13 “내 백성들아, 제발 내 말을 들어다오. ○ 이스라엘아, 나의 뜻을 따라 걸어다오.</p>	<p>14 그리하면 당장 너희 원수들을 쳐부수리라. ○ 나 당장 너희 압제자들에게 손을 대리라.</p> <p>15 주님의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아침하게 될 것이니 ○ 그들의 운명은 돌이킬 수 없으리라.</p> <p>16 그러나 내 백성은 기름진 밀가루로 먹이고 ○ 바위에서 따낸 꿀로 배불리리라.”</p> <p>◎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○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, 아멘.</p> <p>82편</p> <p>1. 하느님께서서 군왕들을 모으시고 ○ 그 가운데 서시어 재판하신다.</p> <p>2. “언제까지 너희는 불공평한 재판을 하려는가? ○ 언제까지 악인에게 편들려는가?</p> <p>3. 약한 자와 고아를 보살펴 주고 ○ 없는 이와 구차한 이들의 권리를 찾아 주며,</p> <p>4. 가난한 자와 약자들을 풀어 주어라. ○ 악인의 손에서 구해주어라.”</p> <p>5. “그러나 그들은 분별력이 없고 깨닫지도 못하여 ○ 어둠 속을 헤매고만 있으니 세상은 뿌리째 흔들린다.</p> <p>6. 나의 선고를 들어라. 너희가 비록 신이라 말하고 ○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칭하고 있지만,</p> <p>7. 너희는 보통 인간처럼 죽겠고 ○ 여느 군주처럼 넘어지리라.”</p> <p>8. 하느님이여, 일어나시어 온 세상을 재판하소서. ○ 만백성이 당신의 것이옵니다.</p> <p>◎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○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, 아멘.</p>
--	--

복음서 마르코(마가)복음 8:34-9:1

<p>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리를 불러 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"나를 따라오려고 하는 사람은, 자기를 부인하고, 자기 십자가를 지고, 나를 따라오너라.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,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.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, 무슨 이득이 있겠느냐? 사람이 제 목숨을 되찾는 대가로 무엇을 내놓겠느냐? 음란하고 죄가 많은 이 세대에서, 누구든지 나와</p>	<p>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, 인자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에 싸여 거룩한 천사들을 거느리고 올 때에,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."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. "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. 여기에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,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.“</p> <p>○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. ●하느님께 감사합니다.</p>
---	--